‘법화 곳집, 화엄 열쇠’ … 능엄경 了義 드러낸 주석서

〈요의〉



능엄경정맥소

교광진감 지음
진명 스님 역
불광 펴냄
4권 세트 20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선방 수좌로서 오로지 화두참구에 매진하던 진명 스님이 10년에 걸쳐 〈대불정수능엄경정맥소〉(이하 정맥소)를 국내 최초로 완역했다. 스님이 처음 〈정맥소〉를 접하게 된 것은 2009년 망월사 선원에서 안거할 때였다. 방선 중에 각성 스님이 강설한 〈능엄경 정해〉를 가까이했다. 그때 〈능엄경〉을 풀이한 여러 소(疏) 중에 〈정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겨울 안거를 마치고 부산 화엄사를 방문해 각성 스님에게서 〈정맥소〉 한 질을 얻었다.

다음 철 ‘개심사 선원’에 방부를 드리고 상하권으로 된 〈정맥소〉 원본과 자전 그리고 허사사전을 들고 입방했다. 방선 때마다 〈정맥소〉를 펼쳐 보았는데, 한문의 울타리에 갇힌 내용이 하나둘 드러나자 환희심이 솟구쳤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과 선후배스님 그리고 불자 대중과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여 번역을 시작했다.

그동안 안거 정진 중에 봐둔 여러 경론과 조사어록이 바탕이 되었다. 한글로 번역하는 일은 간난신고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정맥소〉야말로 수행자의 본분사와 믿음을 돈발하는 특별한 경전이기에 험난하다는 생각도 게으름을 부릴 겨를도 없었다. 시작한 지 2년 만에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 뒤 제방선원에 방부를 드릴 때마다 원고를 지고 다니며, 글 밝은 스님을 만나면 해결하지 못한 곳에 대해 서슴지 않고 물었다. 그렇게 여러 스님의 도움과 그 후의 윤문작업을 더해 총 10여 년의 세월이 걸려 〈정맥소〉를 완역하고 출간하게 됐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문의 난해한 대목은 도표로 정리하고 나름대로 역자 주를 붙여 설명했다. 〈능엄경〉은 수행자의 필독서로서 수행에 바탕이 되는 대승교학을 아우르는 경이다.

‘법화의 곳집이요, 화엄의 열쇠’로서 수행 체계와 방편을 자세히 설하고 있어 예로부터 모든 수행자가 이 경을 중시했다. 〈정맥소〉는 이러한 〈능엄경〉을 철저히 분석해 요의(了義)를 다 드러낸 훌륭한 주석서이다. 대승교학을 밝게 천명해 선(禪)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학적 · 철학적 관점을 제공해준다.

〈정맥소〉는 일찍이 여러 큰스님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니, 운허 스님은 〈능엄경강화〉서 크게 활용했고, 각성 스님은 〈능엄경정해〉에서 이를 바탕으로 강설했다. 〈정맥소〉는 탄허 스님의 〈능엄경〉 번역에 일부 풀이가 있고, 각성 스님은 현시만 옮겼고, 현진 스님에 의해 그 일부가 번역되었을 뿐 전체가 완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큰스님들께서 입을 모아 〈정맥소〉야말로 〈능엄경〉의 심오한 이치를 잘 천명했다고 말은 했으나 불행히도 전모를 다 살펴볼 수 없었다. 교학적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선수행과 체득(體得) 없이는 문장을 올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글세대인 우리들에게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때때로 아란야에 깃드는 것을 출가의 본분으로 삼던 선객 진명 스님이 〈정맥소〉를 완역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어째서 화두선을 최상승선이라 이름하는가? 많은 불교 수행체계 중에서 왜 화두선만을 고집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 한국불교 선수행자라면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는 곧 자기 수행체계를 흔드는 역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화두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십수년을 참구한 이도 다른 방편을 찾아 헤매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 절집안의 실정이다.

〈능엄경〉, 부처 되기 위한 수행법 설해

〈정맥소〉는 〈능엄경〉 완벽 이해의 필수

이는 실로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방의 스님들도 걱정 끝에 이런저런 대안을 모색했던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대승요의를 바탕으로 한 교학적 답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맥소〉 완역은 화두참구의 교학적 · 철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한국 불교의 수행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뿌리가 되어준다.

〈능엄경〉의 정식 명칭은 ‘대불정 여래밀인 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이며, 줄여서 ‘(수)능엄경’ 또는 ‘대불정수능엄경’이라고 부른다. 경(經)을 포함한 20자를 간단히 풀이하면, ‘더없이 훌륭한 여래의 비밀방편으로 닦고 증득하는 가지가지 만행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 모습인 여래장 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 곧 首楞嚴)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는 가르침(經)’이라는 뜻이다. 즉, ‘무한히 큰 절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되기 위해 닦는 보살들의 완전무결하고 견고한 육도만행 수행법을 설한 경’이라고 할 수 있다.

〈능엄경〉은 신라 말기에 선법이 전래되면서 당에서 돌아온 유학승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라 추측된다. 불교의 철리와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전이므로 선가에서뿐만 아니라 교가에서도 매우 중요시했으며, 한국불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전 중 하나이다. 이 경은 〈원각경〉 〈금강경〉 〈기신론〉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 강원의 4교과로 쓰이며, 대교과를 마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경전이다. 〈능엄경〉은 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수승한 수행지침서로서 고래로 선문서 즐겨 애독됐고, 특히 선수행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선 수행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경전으로 손꼽힌다.

이 경은 8세기 초 한문으로 번역된 이래 가장 많은 주석이 나온 경전일 것이다. 그러나 진감 스님은 그 미진함을 통탄하고 새로운 소(疏)를 쓰고자 발심해 출가했다. 스님은 당시 가장 널리 유통된 주석서인 〈십가회해(十家會解)〉(일명 舊解)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주석을 펴냈는데, 이것이 바로 〈정맥소〉이다. 진감 선사는 〈정맥소〉를 통해 유식과 중관, 여래장 사상 등 대승(大乘)의 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문의 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관점을 세웠다. 진감 스님은 출가한 후 20여 년 동안 오로지 〈능엄경〉의 주석을 내는 일에만 매진해 이 소 하나만을 저술로 남겼다. 다른 주석가들이 여러 교학의 틀로 〈능엄경〉을 해석했다면, 진감 스님은 오로지 경의 맥락에 의지해 해석했고, 이런 이유로 소의 이름을 ‘정맥(正脈)’이라 하였다.

부처님 말씀으로 본 자녀 교육의 새로운 정의



부처님의 사랑법

황옥자 지음/모과나무 펴냄/1만 5천원

자녀 교육을 매뉴얼 따라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느 아이에게나 통하는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처님의 사랑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올바른 자녀 교육의 길을 부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는 근거 없는 기대 대신 지혜와 자비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법을 찾아간다.

아동교육학자 황옥자 교수는 〈부처님의 사랑법〉에서 총 10장의 주제를 선정했다. 내용으로는 영유아 시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발달심리학적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부모 자녀 관계, 친구, 인지, 정서, 인성, 사회성 등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아이와 부딪치는 실제 사례를 경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이야기라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다. 부모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폭발적으로 접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어느 것이 내 아이에게 맞을지 찾는다는 건 쉽지만은 않다. 대체로 젊은 부모들이 이론으로는 책을 써도 될 정도이지만 막상 생활에서 아이들과 부딪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자녀 교육을 매뉴얼 따라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느 아이에게나 통하는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처님의 사랑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올바른 자녀 교육의 길을 부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는 근거 없는 기대 대신 지혜와 자비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법을 찾아간다.

자기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행동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양육 태도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단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습관처럼 형성된 행동 패턴일 뿐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신의 패턴에 집착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양육 방식이 그 어느 방법보다 낫고 뛰어나고 옳다고 믿는다. 실제로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에 스스로 깊게 빠져든다. 문제는 습관처럼 사용하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들은 잘한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어떤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지, 자신이 왜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의 태도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이 부모가 당면하는 맹점이다.

부모라는 새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아이는 부모 부속물 아닌 존중 받을 존재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뭔지 모르게 아련히 밀려오는 불안을 느낀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안정된 부모 역할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너무 빠르고 요구도 다양하여 이를 잘 감당해내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부모보다는 오히려 어린 자녀가 상처를 입기 쉽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비해 요즈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중독에 쉽게 노출된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성장하듯이 부모도 새롭게 주어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배우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동교육학자 황옥자 교수는 〈부처님의 사랑법〉에서 총 10장의 주제를 선정했다. 내용으로는 영유아 시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발달심리학적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부모 자녀 관계, 친구, 인지, 정서, 인성, 사회성 등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 해도 이해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아이와 부딪치는 실제 사례를 경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이야기라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고, 진리란 세상 누구에게나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만일 부처님이라면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결하실까’ 황옥자 교수는 아동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본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귀히 여기는 자세로 부처님의 말, 행동, 생각을 닮으려고 노력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이란 인간에 대해 새로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결과를 보상 받으려 하는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일깨운다. 자녀 교육이란 아이를 통해서 부모 역시 성장하는 시간인 것이다. 부모 역할의 한계를 잘 알면서 자비와 지혜와 용기를 가진 인간으로 변신하는 멋진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 전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황옥자**는?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불교아동학과 명예교수이다. 한국STEP부모교육센터 소장, 명상 상담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2006년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선정한 ‘제2차 여성 불자 108인’에 선정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불교아동교육론〉 〈부모와 함께하는 내 아이 마음 키우기〉 〈유아 교사와 부모를 위한 동요와 손 유희〉 등이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영유아의 부모STEP〉(공역), 〈아동의 부모STEP〉(공역), 〈청소년의 부모STEP〉(공역),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지능검사와 훈련〉(공역)이 있고 그 외 논문이 다수 있다.



소형난로



중형난로 / 대형난로

사천왕 대형 난로

(고압노즐 회전분식형 소각 기능)

소형난로	폭 600mm × 길이 1,000mm × 높이 1,500mm × 두께 9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700~800℃
중형난로	폭 800mm × 길이 1,300mm × 높이 1,650mm × 두께 12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600~700℃
대형난로	폭 1,000mm × 길이 2,000mm × 높이 2,150mm × 두께 12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500 ~ 600℃
공양초집	폭 800mm × 길이 1,600mm × 높이 2,030mm 재질 STS 304

난로 할부판매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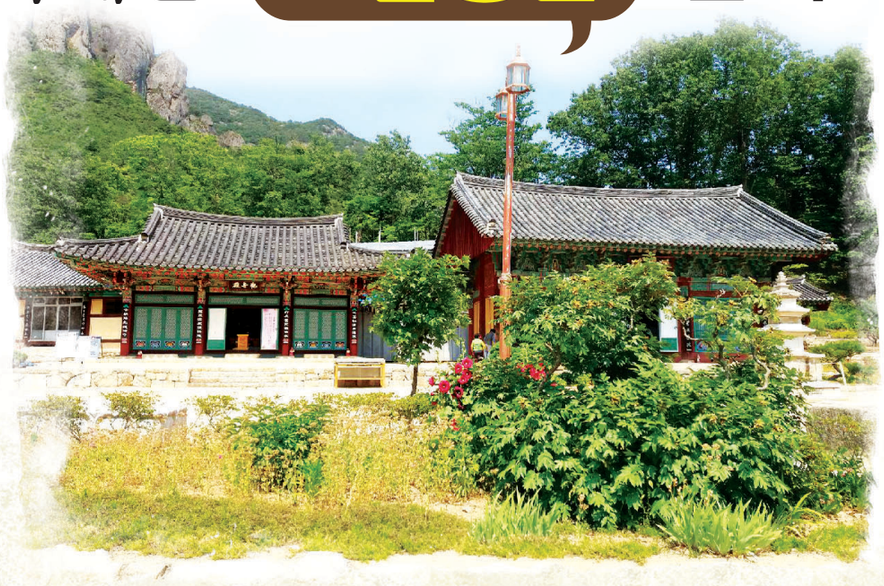
공양 초집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